



지하철역 도서관을 만들자

글: 한상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인 도서관은 정보제공의 장임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공부방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회적 풍토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하철을 타보면 대부분의 승객은 무료신문이나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임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하철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염려가 많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한 소설가의 글을 보면 입국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미국을 싫어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도 어느 곳을 가도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이 아주 놀라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을

탓하고, 도서관에 오지 않는 시민들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발상을 전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도서관을 만드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구현하면 어떨까?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은 어디가 있을까? 바로 지하철역이 아닐까 싶다. 필자가 사는 신도시의 주민들은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들이 피곤한 일요일에 책을 보러 도서관을 가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침의 지하철역 풍경을 잠시 생각해 보자.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면 무료신문을 친절하게 나눠준다. 어차피 지하철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므로 습관적으로 신문을 받아들고 지하철을 탄다. 무료신문을 대충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 출근하여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

지하철역마다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 일부 역에는 지하철문고라 하여 책장 몇 개에 기증받은 책들을 꽂아두고 있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책을 놔두면 가져가니 가져가도 무방한 책들만 놔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필요한 시설을

*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소장, 푸른꿈 도서관장, childlib@hanmail.net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책들을 비치하여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책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서들을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문헌정보학 대학생들을 활용한 인턴근무제도 가능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각 역마다 생긴다면 사서들의 취업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치도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세워 신간 중심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신간 중심)을 대여해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하철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시민들이 책보기를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하는 책을 이용할 도서관이 가까이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책을 사러 서점에 들르는 것도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런 시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책들을 모아놓은 작은 도서관이 지하철역에 있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린이들이 책을 읽지 않아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어린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책은 저절로 읽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 아이 교실에 좋은 책을 20여권 사서 보내주었다. 한 학기가 끝나 아이에게 물어보니 반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책을 읽었다고 한다. 항상 생활하는 교실에 책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방과 후에 학원 가느라 바쁜 아이들에게 책을 안 봐 걱정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런 상황을 쉽게 고치기 어렵다면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 좋은 책을 놔두면 된다. 책읽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만만치 않은데 보고 싶은 책을 일일이 사기란 쉽지 않다. 설사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바쁜 현대인이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더구나 인터넷 서점으로는 책을 볼 수 없어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요즘 많이 읽는다는 베스트셀러도 보고 싶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만한 책도 보고 싶다. 생활에 치여 살다가 문득 내가 이러다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이런 생활인들에게 출퇴근길에 편하게 들러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지하철역 도서관은 참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은 우리 사회에 있는 유휴 공간과 기존에 운영중인 인력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없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도서관인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당장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6개월 정도만 실시해 보아도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에 소외되어 있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어 21세기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